



한국건설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 가장 긴 세월 한국 건설을 대표하는 선도기업 대림산업

‘고객신뢰, 인간존중, 미래경영’를 경영원칙으로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자리매김해온 대림산업. 건설회사로서는 유일하게 1955년부터 52년간 ‘100대 기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대림산업의 성장 동력을 알아보았다.

에디터 | 최보윤 · 자료 제공 |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1970년대 이전부터 ‘고객신뢰, 인간존중, 미래경영’이라는 3가지 경영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 건설업계가 정부 발주의 공공 공사 수주에 상당 부분 의존하던 1990년대에도 대림산업은 맨 먼저 ‘고객중심의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2006년부터는 고객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기대와 염원을 담아 ‘Best Value, Better Life’란 문구를 회사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Best Value’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Better Life’는 고객이 좀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대림산업은 ‘최고의 품질 및 기술선도 역량 확보’를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1997년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기술을 통한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식의 양적 향상을 이뤄내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지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경영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다. 2006년 학습조직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총 2000여 명의 임직원이 252개 학습팀을 조직해 다양한 종류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학습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1건, 특허 2건을 등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세계 24개국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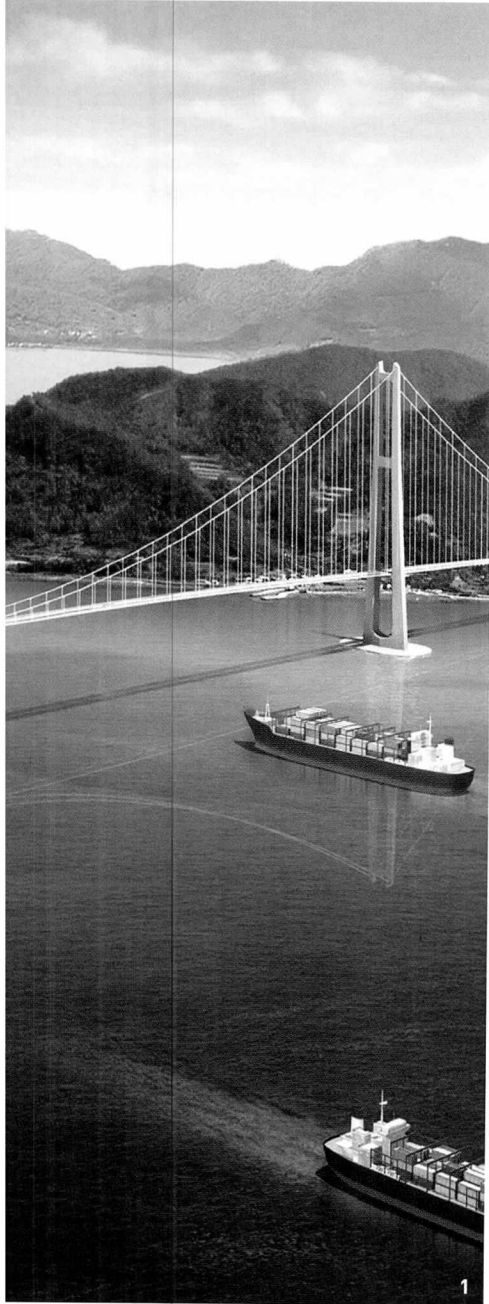
대림산업은 1966년 2월 월남전 당시 미해군 시설처(OICC)가 발주한 88만 달러의 항만공사를 수주하면서 한국 기업으로서 최초로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6월 한국은행에 공사 착수금 4만5000달러가 입금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건설 외화 획득 제1호 기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1973년 11월 사우디에 지점을 설치하고 아람코사가 발주한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공사를 도급금액 16만 달러에 수주함으로써 ‘국내 최초 중동 진출’에 성공(동아 74년, 현대 75년)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까지 사우디·이란·UAE·인도·태국·필리핀을 포함한 24개국에서 플랜트 수출·댐·도로·항만·공공주택 등의 다채로운 해외건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문의 경우 대림산업이 1982~1985년까지 수행한 사우디 리야드 공공주택 건설공사는 지금까지도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주택건설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리야드 공공주택건설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가 유목생활에 익숙한 자국민들을 신시가지 개발 지역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빌라형주택 1258개 동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였다.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리야드 공사는 신시가지 개발면적만도 동탄 신도시 크기인 528만㎡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은 88올림픽 주경기장과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국회의사당, 법원종합청사, 대한상공회의소 등 시대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을 선보인 실적을 자랑한다.

### 최고의 품질과 실용성에 서비스까지,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

2000년 2월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e-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출시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탤런트 채시라를 CF 모델로 내세워 국내 건설사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TV광고를 시작했다. 아파트에는 건설사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던 그당시에 톱 스타를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인 아파트 브랜드 광고를 시작한 것은 주택업계 내에서도 가히 혁명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으며 대림산업은 아파트 인지도와 선호도를 40%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단숨에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브랜드 론칭과 함께 친





환경 조경설계와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를 도입해 서울시 조경대상과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동시 수상했으며, 2003년 이후 서울시와 수도권 내에서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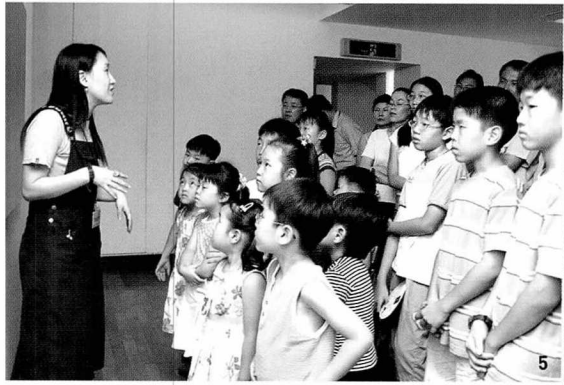
2000년 5월에 분양한 신도림 e-편한세상은 2002년 서울시 조경대상과 2004년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동시 수상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아파트로 명성을 이어갔다. 1층과 최상층 세대를 복층으로 설계하고 최신 유행하는 가변형 벽체와 필로티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와 지하 주차장, 지하 정원까지 설치해 당대 건설업계의 아파트 설계 트렌드를 바꿔 놓았다. 또한 업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해 각종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가능한 정보화마을을 커뮤니티 시설로 제공했으며, 입주 후 1년간 인터넷을 무료로 공급하는 파격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신도림 4차 e-편한세상의 시세는 현재까지 분양가 대비 3.5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이러한 성공은 e-편한세상이 2003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 1위(부동산전문업체 덴커뮤니티 2006.05.31 발표)에 오르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했으며, 론칭 초기부터 지금까지 8년 연속으로 아파트 인지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 2007년, 대림산업의 성공 신화를 이어간다

올해 대림산업은 유회부문을 포함해 수주 6조6500억 원, 매출 4조8천억 원, 순이익 3840억 원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으며, 창립 70주년이 되는 2009년에는 수주 9조 원, 매출 6조 8200억 원, 순이익 51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림산업은 최대 강점인 토목·건축·플랜트의 3개 사업군 간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해 나감

1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량인 광양대교. 2012년 완공 예정이다. 2 2007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오산 원동 e-편한세상 단지 전경. 총 236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3 대림주택문화관에 마련된 234㎡ 거실의 내부 모습. 한국적인 미를 강조한 생태학적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4 대림산업 대표이사 김종인 사장의 모습. 5 대림산업은 입주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마다 연 2회 대림미술관에서 아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트윈타워 빌딩인 평촌 아크로타워. 높이 142m, 42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이다. 7 오산 e-편한세상 단지 내 설치된 최정화 작가의 '과일나무'.





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경기 사이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대림산업은 에너지 사업, 민자SOC 사업, 복합도시 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해 중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경영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주택부문에서는 '오산 세마 e-편한세상'과 '황학 아크로타워' 프로젝트를 중점사업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8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140번지 일대(미원모방 부지)에 지하1층, 지상 22층 30개동 총 1646세대 규모로 분양 예정인 세마 e-편한세상은 2010년 1월 입주 예정으로 단지 내 피트니스 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1.5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장을 배치했다. 단지 인근에 3만여 세대의 세교 1, 2지구와 병점 복합타운(38만㎡ 규모)이 들어설 예정에 있어, 주거 인프라와 편의 시설 확충에 힘입어 새로운 주거환경의 수혜 지역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 중구 황학동 2523번지 일대에 분양하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 '황학아크로 타워'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도심형 복합타운의 대명사로 서울 어느 곳과도 쉽게 닿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시가지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과 종로의 모든 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청계천·동대문운동장 녹지화·남산공원 등 단지 주변의 여가문화 공간과 휴식 공간이 풍부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1939년 창업 이후 68년 동안 한국 건설업계를 선도해온 대림산업.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에 6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대림산업이 한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